J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유관우입니다.

JB금융그룹의 성장과 발전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주주님들께 이사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이사회는 배당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대한 얼라인파트너스의 주주제안을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부의하게 되었는바 이사회를 대표하여 금번 주주제안에 대한 이사회의 입장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JB금융지주 이사회는 배당 관련 주주제안이 당사 기업가치 및 전체 주주 이익 증대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JB금융그룹은 2019년 CET1비율이 9.5%를 초과한 이후 매년 꾸준히 배당성향을 확대해왔으며, 금년에도 이사회는 배당성향을 전년보다 4%p 증가된 27%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주당배당금을 전년보다 236원 증가한 835원(중간배당 120원 & 결산배당 715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동 배당성향은 동종업계 대비 최고 수준이며, 이는 기존 배당 정책 공시내용을 충실히 준수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JB금융그룹은 4년 연속 업종 최고 수익성을 기반으로 매년 사상 최대 당기순이익을 달성해 왔으며, 배당 등 직접 주주 환원 외에 주가수익률 측면에서도 업종 최상위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회사가 그 동안 재무건전성을 감안하여 적정 주주환원을 포함한 합리적인 자본정책과 수익성 중심의 내실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얼라인파트너스는 회사의 배당을 주당 900원(누적 1,020원) 수준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재무건전성 유지 및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 배당과 주주환원 수준의 안정적 성장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요구이며, 회사의 기업 가치와 전체 주주 이익증대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JB금융지주 이사회는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추가 선임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JB금융지주 이사회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외이사 전원이 포함된 독립적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사외이사 7명, 비상임이사 1명)를 통해, 공정하고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에 대해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소극적 자격요건 외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기주주총회 안건 확정을 불과 2주 앞둔 시점에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추천이 요청됨에 따라, 이사회는 최소한의 법적인 자격요건만을 확인한 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회는 해당 후보자가 회사의 경영 및 기업가치 제고에 필요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는바, 사외이사의 전문적 정합성과 이사회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후보심사 및 검증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후보가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이사회는 관련 법률 및 금융감독원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금융, 경제, 법률, 재무/회계, 소비자 보호 등에서 충분한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사외이사들이 포함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이사회의 역할과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업계 최상위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최근 경영실적을 감안할 때, 사외이사 추가 선임의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JB금융지주 이사회는 향후에도 배당 및 주주환원 확대를 통한 주주이익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주주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J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유 관 우